



## “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완성”

계 22 : 12 - 22

2010. 3. 17 (수), 21 (토) 강사: 박원호 목사(주님의교회 담임)

###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

창조 세계를 죄로부터 회복.

십자가에서 죄를 정복하셨고, 부활에서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시대를 시작하심. 왕국 잔치는 이미 즐길 준비가 되어 있으나 아직 시작은 아님.

### 1. 오순절 성령의 역사

성령이 공동체를 형성함.

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나누고 전파하는 것.

### 2. 바울의 사역

교회를 새롭게 세우고, 사람들을 세우고, 로마 제국 전체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목표. (세 번의 여행: 소아시아, 그리스, 마케도니아)

#### 1) 바울의 가르침 :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됨 (dawned)

역사는 현재의 시대와 다가올 시대로 나누어짐.

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며,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확신함.

#### 2) 부활은 새로운 시대의 삶으로 육체적으로 도래하는 것을 의미.

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.

#### 3) 그러면 왜 지금도 세상에 죄가 있는가?

Already and Not Yet!(이미 그러나 아직)

#### 4) 바울의 관심

가.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전하는 것.

나.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는 것.

#### 5) 세상을 위해서!

교회의 새로운 삶과 순종은 세상을 위한 것.

바울의 깊은 염려는 복음이 교회 안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.

롬 12: 17, 빌 4:5, 골 4: 5, 살전 4:12, 딤후 2:7-8, 빌 1: 27.

### 대단원의 막 : 그리스도의 재림

The Return of the King : Redemption Completed

계시록(특히 21: 1-5)은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을 보여줌.

죄와 악이 없고 옛 시대가 떠나고 새로운 통치의 시대가 도래함.

새 예루살렘, 새 하늘과 새 땅.

### 1. 새로운 창조 : 만물의 회복 (The Restoration of All Things)

계 21장은 완전히 회복된 세상의 모습, 인간의 전체 삶과 전체 세상이

회복된 모습. (Whole of Human Life and Whole Creation!)

#### 1) 계시록의 인간 이해 :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.

우리 모두는 역사의 흐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

우리는 역사의 과정(process) 안에서 살고 있음.

요한의 확신: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,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됨.

#### 2)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중심 질문

가. 세상에서 우리 개인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?

나. 우리가 속한 역사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?

- 현실의 부패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?
- 현실 가운데서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?
-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?

## 2. 계시록의 구조

### 1) 서론과 후기

1: 1-3 전체 책의 서론. “계시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!” 22: 6-21절; 후기. 다시금 서론을 확인.

### 2) 세 부분

- a. 1: 4-20 부활하신 예수, 들리신 예수를 요한이 바라봄 1: 4-20
- b. 2: 1-3 :22 7교회.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.  
교회가 하나되어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는 메시지.  
비록 각 교회들은 잘못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중요하다.
- c. 4: 1- 22: 5

### 3) 열쇠

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데 핵심 : 7이라는 숫자

- 1: 4 일곱 영
- 1: 11 일곱 교회
- 1: 12 일곱 등잔
- 1: 16 일곱 별

### 4) 7교회 : 세상에서의 교회

가. 요한의 메시지 :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충실할 때 만이 교회가 될 수 있음. 아울러 교회의 주님은 역사와 세상의 주님.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 염세주의 또는 무관심할 수 없으며 시대의 징조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(마 16: 2-4) 주님과 함께 참여해서 옛 시대가 무너지는 가운데 새 시대가 오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함.

나. 자기비판(self-criticism)은 교회의 생명.  
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됨.

\* 전체 교회 : 일곱 교회는 전체 교회를 상징함.

## 5) 미래의 비전 (4 : 1-22 : 5)

일곱 인(4 : 1-7 : 17)

일곱 나팔(8 : 1-14 : 20)

일곱 대접(15 : 1-22 : 5)

## 6) 일곱 인물

인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상징함.

- 인(seal) : 인간 삶과 문명에 있는 악의 세력들 전체.

정복, 전쟁, 기근, 죽음,

- 다섯 번째 인 : 순교한 성도들.

- 여섯 번째 인 : 자연의 재해들. 지구, 달, 별, 하늘, 산, 섬들.

네 천사들이 바람을 다스림.

## 7) 일곱 나팔 : 8 : 6 - 14 : 20

**첫째 - 넷째 나팔** 재난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자연에

나타남.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문명에 대한 심판을 상징.

**다섯 번째 나팔** 폭발이 일어남. 무저갱(지옥)이 열림.

연기가 솟아나며, 황충이 나옴. 황충이 말들로 변하고, 리더인 아바돈을 따라 전쟁에 나감. 아바돈과 황충-말은 무저갱의 열쇠를 연 주님의 부활에 대한 악의 응전임.

**여섯 번째 나팔** 세상에는 두개의 주된 세력이 있음을 말함.

**일곱 번째 나팔** 여인이 아들을 낳음. 거대한 용이 아기를 삼키지만, 어머니와 아기가 구원받음. 이는 그리스도와 악 사이의 갈등의 본질을 더욱 깊이 묘사함.

**666** 사탄이 예수를 유혹하고 죽이려하나 실패함,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함. 또한 실패함. 왜냐하면 14,400명 전부가 그 덫을 피했기 때문.

**두 증인 (11 : 1-14)** 이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증인들이며 모든  
기독교인을 가리킴.

## 8) 일곱 대접과 하나님의 진노

- 가.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. (15 : 1-4) 일곱 천사와 일곱 재앙  
(15 : 5-8) 진노의 일곱 대접. (16 : 1-21)
- 나. 로마의 함락이 예언됨. (17 : 1- 18 : 24)  
짐승을 탄 여인의 몰락. (17 : 1-18)  
바벨론의 몰락. (18 : 1-24)
- 다.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심. (19 : 1-21)  
하늘의 무리들 찬송. (19 : 1-10)  
백마 탄 자에 의해 악이 멸망함. (19 : 11-21)
- 라. 그리스도의 통치. (20 : 1-15)  
천년의 통치. (20 : 1-6) 사탄의 운명. (20 : 7-10)  
흰 보좌 심판. (19 : 11-21)
- 마. 영원한 새 질서. (21 : 1-22 : 6)  
새 하늘과 새 땅. (21 : 1-8)  
새 예루살렘. (21 : 9-27)  
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. (22 : 1-6)
- 바. 그리스도의 귀환의 약속. (22 : 7-21)